

#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초청작 심사 결과 공고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이하 SPAF) 국내초청작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총 189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9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정되었던 결과 발표가 지연된 점에 대해 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예술가와 단체 분들께 사과드리며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2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공모개요

- (공모명)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초청작 공모
- (공모기간) 2022. 2. 24.(목) ~ 3. 16.(수) 15:00
- (공모자격)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공연예술단체
- (공모결과) 총 189건

## □ 심사개요

- (심사방법)

구분	심의내용	일시
1차 서류심사 (개별)	지원 신청서 서류 검토 및 심사	2022년 3월 4주 ~ 5주
2차 서류심사 (토론)		2022년 3월 31일(목)
3차 협상	단체별 협상	2022년 4월 1주 ~ 2주

- (심사기준)

기준	가중치	평가 내용
예술적 방향성	40%	예술적 독창성, 실험성, 동시대적 주제성
작품 완성도 및 축제 부합성	40%	작품 형식 및 내용의 수월성, 예술적 방향성/창의성, 국내외 유통 가능성
실현 가능성	20%	예산, 제작 일정, 인력 구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심사위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SPAF 예술감독

이름	소속 및 직책
손옥주	무용 및 다원예술 평론가
이경미	연극평론가
정진세	연출가, 극작가
조형준	안산문화재단 시각예술부 부장
최석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 □ 선정결과

- (선정건수) 총 9건

접수번호	단체명	작품명	초/재연
8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돼지춤	재연
48	하땅세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 2부	초연
69	Edge	Play/ games/ Under fragility	초연
74	코끼리들이 웃는다	잠자리 연대기	재연
93	프리즈마	칭찬총 소나타 No.1	재연
119	모든컴퍼니	PISTE: Eight Moments	초연
122	호랑이기운	콜타임	재연
165	음악동인고물	꼭두각시	재연
177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	재연

## □ 심사총평

2022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초청작 공모에는 189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본 축제에 접수되었던 공모작 수를 훨씬 웃도는 결과로, 향후 이어질 축제의 변화에 대한 공연예술계의 기대를 가능케 할 수 있었다. 작품들의 경향을 보면, 동시대의 새로운 예술 형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작품과 전통적인 형식의 작업을 유지하는 작품 간의 두드러진 차이가 보였다. 국악과 음악은 장르 융합 및 양식적인 실험을 적극적으로 하고있는 반면, 연극과 무용은 전통적인 장르적 특성을 고수하거나 혹은 탈장르화 하는 등의 양극화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양한 형식과 종류의 작품이 공모에 신청한 것은, 그간 축제가 제시하는 예술적 방향성과 비전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축제 예술적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동시대 축제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현장 예술가들과 공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심의위원들은 1차로 각 지원자의 신청서와 영상 및 (초연) 대본을 검토하여 개별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최종 선정을 위한 토론 심사를 통해, 예술적 방향성, 작품의 완성도 및 축제 부합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각각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적 방향성은 1. 예술적 독창성, 2. 실험성, 3. 동시대적 주제성의 포함 여부가 중심이 되고, 작품 완성도 및 축제 부합성은 1. 작품 형식 및 내용의 수월성, 2. 예술적 방향성 및 창의성, 3. 국내외 관객 개발과 유통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마지막 기준인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제작 일정, 인력 구성 등 공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실현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시된 심사기준 가운데에서 예술적 방향성은 심사를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로 작용했는데,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하여, 작품의 동시대에 관한 질문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창작자들의 실험정신을 주요한 이정표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급변하는 동시대 화두를 주제나 형식에서 어떻게 미학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동료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예술적 동력을, 관객에게는 현대 공연예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선사할 가능성 등을 주목하였다. 작품이 동시대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있는지, 그 질문이 차이를 넘어 많은 이들의 문을 두드리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지도 판단 척도가 되었다. 급변하는 동시대 사회는 여러 가지 속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들이 극명해지는 시기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하는 예술작품에서 이러한 위기들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어떤 유효성과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고려되었다.

각 장르별 작품 선정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연극은 작품이 동시대적 주제를 잘 반영하고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에 주목하였다. 동기간 진행되는 서울세계무용축제와의 차별화를 위해 무용 장르에 대한 지향점과 선정에 많은 고민의 지점이 있었다.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질문은 많지만, 몸의 미학보다는 몸과 오브제, 장치, 빛 그리고 운동성과 유기적 관계를 토대로 실험하는 작품과 몸과 기술과 같은 외적 요소들과의 실험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였다. 다원 및 융복합 작품의 경우에는 다양한 예술 형식의 실험과 더불어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도 주목하였다.

본 축제를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이해하고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들도 더러 볼 수 있었다. 축제는 객관적 척도에 의해 우열을 가리는 공모제가 아니다. 축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단순히 지원이 아닌 그 축제의 예술적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며,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많은 현장 예술인들과 함께 연대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예술기반팀  
02-2098-2987, [spaf@gokams.or.kr](mailto:spaf@gokams.or.kr)